

A매치 100골 금자탑...“내가 호날두다”

유럽 선수 최초...세계 두번째 네이션스리그서 100·101호 골 포르투갈, 스웨덴에 2-0 승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유럽 선수 최초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00골을 돌파했다.

포르투갈은 9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스웨덴과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조별리그 3조 2차전에서 2-0으로 완승했다.

1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 4-1로 이긴 포르투갈은 2승(승점 6·골 득실 +5)을 챙겨 조 1위를 유지했다.

발가락 염증으로 크로아티아전에 결장했던 호날두는 이날 멀티 골을 폭발해 포르투갈의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5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후반 27분에는 중앙 펠릭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로 차 넣으며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호날두는 이날 국가대표로 나선 165번째 경기에서 A매치 100·101호 골을 터뜨렸다.

유럽 선수 중 최초로 A매치에서 100골 금자탑을 세웠다.

전 세계에서는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109골)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다에이는 A매치 149경기에서 109골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전반 43분 구스타브 스벤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고, 호날두의 대기록 작성을 지켜보며 승리를 내줘야 했다.

리그A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는 덴마크와 잉글랜드가 0-0 무승부를 거뒀다.

메이슨 그린우드와 필 포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퇴출당하는 등 진통을 겪은 뒤 잉글랜드가 치른 첫 경기였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코너 코디, 잭 그릴리시, 칼빈 필립스, 에이슬리 메이틀랜드-나일스 등 4명의 새내기 선수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주며 덴마크에 맞섰으나 무승부로 A매치 4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덴마크가 10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잉글랜드는 5개 슈팅을 차는 데 그쳤다.

전반 15분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가 오른쪽 측면에서 찬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손에 맞혔고 후반 23분 해리 케인의 헤딩 슈트는 골대 위로 넘어갔다.

해리 케인이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수가 쇄도해 건어내는 등 잉글랜드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조별리그 3조 2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2 전남 황기욱 18라운드 '베스트 11'

멀티골을 장식한 전남 드래곤즈 황기욱(사진)이 K리그 2 18라운드 MVP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9일 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남 미드필더 황기욱이 18라운드 최고의 선수가 됐다.



황기욱은 앞선 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전반 9분 머리로 선제골을 넣은 황기욱은 1-1로 맞선 후반 38분 역전골까지 장식했다. 하지만 팀은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장준영의 헤더골에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을 상대로 '극장골'을 장식한 수원FC 수비수 장준영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19라운드를 치른 K리그2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무고사가 MVP에 등극했다.

무고사는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6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팀의 첫 골을 넣은 뒤 후반 16분과 후반 19분에도 골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무고사의 시즌 첫 헤트트릭이자 통산 두 번째 헤트트릭이 기록됐다.

한편 인천은 13분 동안 3골을 몰아넣은 무고사의 활약으로 3-2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수가 뽑은 EPL '올해의 선수'도 더브라위너 여자부 첼시 지소연 '올해의 팀' 베스트 11에

선수들이 뽑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올해의 선수'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29·벨기에)였다.

더브라위너는 9일(한국시간) 잉글랜드프로축구 선수협회(PFA)가 발표한 2019-2020시즌 '올해의 선수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맨시티 소속 선수가 PFA 올해의 선수로 뽑힌 것은 1974년 시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더브라위너는 앞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으로부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선수들에게서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시즌 더브라위너는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3골 20도움으로 맹활약하며 도움 및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했다.

비록 맨시티는 우승을 놓쳤으나 더브라위너는 리그 챔피언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 조던 헨더슨, 지난 시즌 수상자 피르힐 판데이크와 맨시티 동료 라힘 스틸링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브라위너는 올해의 팀 11명에도 포함됐다.

올해의 팀에는 리버풀 소속이 5명(알렉산더-아널드, 판데이크, 앤드루 로버트슨, 헨더슨, 마네)으로 가장 많았다.

골키퍼 닉 포프(버리)를 비롯해 제이미 바디, 찰라르 쇠원위(이상 레스터시티), 다비드 실바(맨시티), 피에르-에메리크 오바메양(아스널)도 한자씩 뽑혔다.

가장 돋보인 유망주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은 알렉산더-아널드에게 돌아갔다.



더브라위너

여자부에서는 첼시의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우승을 이끈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지소연이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지소연

정부 지원까지 끌어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구 선수의 모범이 됐다. /연합뉴스

다. WSL 13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한 지소연은 '올해의 팀'에 뽑힌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소속팀 동료인 베서니 잉글랜드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PFA 공로상을 받았다. 래시퍼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 내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고

제임스, PO서만 162승 NBA 최다승 신기록

'킹' 르브론 제임스(36·LA 레이커스)가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

LA 레이커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2라운드(7전 4승제) 3차전 휴스턴 로키츠와 경기에서 112-102로 이겼다.

2승 1패로 우위를 점한 LA 레이커스는 2009-2010시즌 이후 10년 만에 콘퍼런스 결승 진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 제임스는 이날 승리로 개인 통산 플레이오프에서 162승을 기록해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2013-2014시즌까지 현역 선수로 뛴 데릭 피셔(46)가 161승으로 플레이오프 최다승 2위로 밀려났다.

제임스는 "그동안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그리고 이 팀에서 훌륭한 동료 선수들, 지도자들을 만난 덕분"이라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위치는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3쿼터까지 82-82로 휴스턴과 팽팽히 맞선 LA 레이커스는 4쿼터에만 12점, 5어시스트로 활약한 라존 룬도의 활약을 앞세워 10점 차 승리를 따냈다. 제임스가 36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룬도 21점, 앤서니 데이비스 26점에 15리바운드 등이 팀 승리를 이끌었다.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마이애미 히트가 밀워키 벅스를 103-94로 제압, 4승 1패로 콘퍼런스 결승에 선착했다. 3연승 뒤 1패를 당했던 마이애미는 이날 승리로 2013-2014시즌 이후 6년 만에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 올랐다.

한편 아데토쿰보는 이날 NBA가 발표한 2019-2020시즌 최우수 수비 선수에 뽑혔다. 수비 베스트 5에는 아데토쿰보 외에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 벤 시먼스(필라델피아), 루디 고베르(유타), 마커스 스마트(보스턴)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여자 당구 3쿠션 강자 김민아 프로 전향

현재 국내랭킹 1위·세계랭킹 6위 30일 개막 TS삼푸 챔피언십 출전

한국 아마추어 여자 당구 3쿠션의 강자 김민아(30)가 프로로 전향했다.

프로당구(PBA) 투어를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회사 브라보엔뉴는 지난 8일 김민아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아는 현재 대한당구연맹(KF) 캐롬 3쿠션 여자부 국내랭킹 1위, 세계랭킹 6위로 국내 여자 당구 강판선수다.

김민아는 이번 계약으로 오는 30일 개막하는 'TS삼푸 PBA-LPBA 챔피언십'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민아는 지난 6월 전국대회인 국토정중앙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에만 서울시장기 당구대회, 인제오미자배 3쿠션 페스티벌, 대한당구연맹회장배, 무안향토양파배 등 국내외 대회에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장상진 브라보엔뉴 마케팅 부문 대표는 "한국 여자 당구를 이끌고 있는 김민아 선수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프로당구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에서 김민아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아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니 프로당구 선수가 됐다는 것이 실감 난다"며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연습에 매진해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대한당구연맹 3쿠션 여자부 랭킹 1위 김민아(왼쪽)가 8일 브라보엔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장상진 대표 겸 PBA 부총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뉴 뮤턴트
3관	에이바, 뉴 뮤턴트, 테스와 보낸 여름
4관	외 문화
5관	외 문화
6관	기괴괴괴 성형수
9관	기괴괴괴 성형수, 테넷
7관	세네카를
8관	세네카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